

# 한국영화 최다작품의 멜로액션영화 감독 고영남의 작품세계론

## Research on Dir. Go, Yeongnam's Film Works

김수남

청주대학교 영화학과

Sunam Kim(ksu-n@hanmail.net)

### 요약

한국영화계에서 최다 작 연출 감독인 고영남은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40여 년 동안 활극, 멜로, 문예, 미스터리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총 110편의 작품을 연출하였다.

1964년 고영남은 <잃어버린 태양>으로 감독 데뷔하여 잇달아 히트작을 내면서 충무로의 액션물과 멜로물 장르를 어우리는 멜로액션의 대표 감독으로 부상하였다. 고영남 작품들의 장르별 제작편수를 정리하면, 멜로영화 47편, 문예영화 6편, 희극영화 3편, 활극영화 22편, 반공영화 21편, 전쟁영화 1편(대부분 전쟁영화는 반공영화로 제작됨), 추리영화 8편, 시대물영화 2편 등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면서 활극영화로 주목받았고 문예영화 <설국> 이후 1970년 후반부터 영화작가로 재탄생한 고영남의 전 작품을 장르별로 정리, 소개하고 그의 작품세계를 논의한다.

■ 중심어 : | <잃어버린 태양> | 최다작 연출 감독 | 활극영화 | 문예영화 | <설국> | 작품세계론 | 멜로액션 |

### Abstract

Dir. Go, Yeongnam has made 110 film works during 40 years from the last of 1960's to the first of 2000's. He has the record for the most making films in Korean film world. His first film is melodrama < Lost Sun>(1964). But he makes literary picture genre film after <Snow Country(Seolguk)>(1977). He has made various genre film such as 47 melo films, 6 literary pictures, 3 comedy films, 22 action films, 21 anti-communism films, 1 war films, 8 detective films, 2 costume plays.

This research discussed on Go, Yeongnam's activity in Korean film world and introduced his all films from the last of 1960's to the first of 2000's. In conclusion I arranged the essay of Go, Yeongnam's film world through analyzing the story of his all films.

■ keyword : | The Record for the Most Making Korean Films | < Lost Sun> | Literary Picture Genre | <Snow Country(Seolguk)> | Costume Plays |

## I. 서론

한국영화계에서 최다 작 연출 감독으로는 김수용 감독

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기록은 고영남 감독에게 돌려줘야 한다. 196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40여 년 동안 활극, 멜로, 문예, 미스터리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

접수일자 : 2014년 11월 12일

수정일자 : 2014년 12월 18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2월 29일

교신저자 : 김수남, e-mail : ksu-n@hanmail.net

며 총 110편의 영화를 연출한 고영남<sup>1</sup> 이 한국영화 최다 작 감독으로 재확인되었다. 그는 1967년 한 해에만 10편의 영화를 연출하였고 보통 년 평균 5편에 달하는 작품을 연출하였다. 가장 활발히 활동했던 시기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로 다양한 작품을 연출하여 흥행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1990년 이후에도 간간히 활동하면서 「그림일기」(2000)을 마지막으로 2003년 9월 17일 폐암으로 40여년의 영화인생을 마감하였다[1]. “슬하에 2남 2녀를 남긴 그는 폐암 말기임을 알게 된 2003년 7월에도 시인 정지용의 삶을 소재로 한 「향수」의 시나리오 작업을 하였다. 투병 중 마지막까지도 영화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2].”

그의 주변에는 국립극단의 전신인 <신협>에 입단하도록 후원해준 선배들과 그가 첫 영화계에 발을 내딛도록 제작부 일을 제의하던 선배 김상호 등 그를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인복이 많은 고영남이었지만 그저 운이라고만 하기엔 자신이 너무나 성실했고 열정이 넘친 영화인이었다. 다작 영화만큼이나 다양한 장르를 다루었던 고영남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린 시절의 성향에서 비롯된다. 극단에서 활동하면서 선배의 권유와 어린 시절 영화에 대한 동경으로 영화계에 입문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한 가지 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왕성한 호기심과 활발한 성격이었다. 그런 고영남과 활극물은 가장 잘 맞아 떨어져 그의 대표적 영화 장르로 성공시킨다.

최다 작 감독으로 기록되는 고영남의 110편의 작품을 정리하면, 시기별로 그의 작품세계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충무로 흥행 감독으로서 인정받았던 그는 활극영화에 집착하였다. 그러나 연출작업의 강행군은 곧 창의력의 고갈로 이어졌고 연출 작품이 태작이라는 자괴감에 빠진 고영남은 슬럼프의 늪에서 한동안 헤어날 수 없기도 하였다. 고영남은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그린 휴머니즘 영화 <소

나기>와 같은 문예영화를 통해서 심도있는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한 1970년 후반부터 침체를 벗어난다. 그의 인생 굴곡에 따라 영화의 장르와 소재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영화인생 40여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활동하였던 그의 작품에서 그의 인생이 묻어나는 것도 그의 작품을 통해서 확인된다. 영화감독으로서 고영남은 한국영화계 최다작 감독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평가되어야 할 감독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면서 활극영화로 주목받았고 1970년 후반부터 문예영화를 만드는 영화작가로 재탄생한 고영남 감독을 재평가 한다. 그의 작품 세계를 논의하기 위해 그가 연출한 전 작품을 장르별로 정리, 소개하였다.

## II. 성장배경과 영화계 입문[3-5]<sup>2</sup>

고영남(본명 진석모)은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sup>3</sup>에서 대지주인 아버지 진경삼의 아들로 1935년 2월 22일에 태어난다. 진석모 씨가 고영남 감독으로 변신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충북 수안보의 지주였던 그의 선친은 도무지 아들이 연극 공부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성명을 회수해 버렸고 그 후 서라벌에서 이광래 선생에게 사사받던 그는 원각사 개관공연에서 조연출을 맡았는데 이름이 없어진 그에게 쉽고 다정한 이름을 연극계 원로 이해량 선생이 지어 주었다. 그와 선친과의 화해는 선친이 작고하시기 5년 전에 풀었는데, 5형제 중 막내인 그에게 가장 많은 것을 기대한 선친의 입장을 고영남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흰칠한 키와 준수한 외모로 운화하고 침착하면서도 활발한 성격 탓에 운동에 소질을 보여 고등학교 시절엔 배구선수를 하기도 하였다. 부친은 똑똑한 그에게 서울로 유학 갈 것을 권유하고 그는 홍익대학교 국문학과에 입학한다. 서울 생활을 하던 중 연극계의 원로 이광래 교수<sup>4</sup>

1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에 따르면 '한국영화 사상 가장 많은 작품을 연출한 감독' 1위는 111편으로 고영남, 2위는 108편의 김수용, 3위는 103편의 임권택 감독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영남의 연출 작품이 111편이 아니라 110편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영상자료원에 보존된 작품목록은 VOD 29편, VHS 30편, DVD 12편 등 총 71편을 감상할 수 있다.

2 인터뷰 자료, 경석범(고영남 이종사촌), 강사일(고영남 고향 동생), 황병천(강사일 씨 친구)

3 그 당시의 주소는 충주시 중원군 삼모면 수회리였다고 한다.

4 입센의 <헬게란드의 해적>을 비롯하여 수십 편의 연극을 연출한 극작가 겸 연출가로 연극단체 '민예(民藝:民族藝術舞臺의 약칭)'를 조직하여 민족예술을 지켰다. 서라벌예술대학(중앙대학교 예술대 전

를 만나게 된 고영남은 그로부터 희극론, 연출론 등을 배우게 된다. 어릴 적부터 예술적인 감각을 어머니의 기질로부터 이어 받았다는 고영남은 풍부한 감성과 젊은 패기를 잃지 않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였다. 선배들의 후원으로 1956년 당시 입단이 까다롭기로 유명했던 국립극장 전속 극단인 <신협>의 연구단원으로 입단하면서 그의 영화인생과 인연을 맺게 된다. 그가 연극에 자리매김하기도 전에 예기치 못한 기회가 찾아온다. 충무로 제작부에서 일하던 선배 김상호가 찾아와 영화 작업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에 27세의 연극학도가 오향영화사(대표 박시춘)의 진행으로 전업하였다. 사실 배가 고파서였다고 회고하는 고영남은 그곳에서 막심 부름을 하다가 충무로 최고 흥행감독인 조궁하 감독을 만나게 된다. <육체의 길>을 연출하고 있던 조궁하 감독에게 성실성을 인정받고 연출조수로 발탁되어 한국 영화계에 입문하게 된다. 그 계기는 작품 「육체의 길」(1959)의 마지막 장면에서 꼭 필요한 함박눈이 내리지 않아 눈을 만들어 뿌리는 작업에 고영남을 비롯한 전 스태프 모두가 하다가 추운 날씨에 지친 스태프들이 잠시 쉬기 위해 식당으로 갔지만 고영남은 혼자 남아서 작업을 계속 했다. 그의 성실한 모습을 본 조궁하 감독은 전격적으로 그를 연출부에 발탁하였다. 이렇게 연출부에서 일하게 된 고영남은 계속해서 권영순 감독의 <흙>(1960)과 <토지>의 작가 박경리의 <표류도>(1960) 등의 문예 작품에서 조감독으로 활동하게 된다. 편집 작업을 돕다가 김기덕 감독을 우연히 만난 고영남은 김기덕의 데뷔작 <오인의 해병>을 비롯한 <멘발의 청춘> 등에서도 조감독으로 활동하는 행운을 얻어 그의 입지를 다져 갔다. 이 시기에 너무 굶고 버티다가 끝내 위를 잘라냈다는 아픈 과거를 그는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후 고영남은 1964년 <잃어버린 태양>으로 감독데뷔에 성공한다. 당시 정상을 달리던 스타배우 엄앵란이 서울극장 대표이자 전국 극장연합회 회장인곽정환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고영남에게 감독 데뷔의 기회를 주었다고 한다. 김기덕류의 청춘영화인 <잃어버린 태양>의 연출을 의뢰받은 그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흥행

에 성공하여 그의 이름을 한국영화계에 알리기 시작하였다. 그의 자질을 알아 본 곽정환은 그에게 활극영화 <명동 44번지>(1965)의 연출을 맡겼고 이 영화로 흥행 감독으로서 위상을 자리잡는다. 이 후 <잃은 자와 찾은 자>(1966), <소령, 강제구>(1966)등 잇달아 흥행작을 내면서 고영남은 충무로의 액션물과 멜로물 장르의 대표 감독으로 부상하였다. 충무로의 모든 제작자들은 고영남에게 앞 다투어 메가폰을 맡겨 마치 급류에 휩쓸리듯 견잡을 수 없이 거품 인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 갔다. 연출작업의 강행군은 곧 창의력의 고갈로 이어졌고 그 자괴감으로 그는 좌절하고 만다. 그러나 고영남은 심기일전하여 새 작품에 몰두하는데, 일본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1977)을 영화화하였다. 일찍이 감독으로서의 입지를 새롭게 세우고자 염원하였던 그 결과물로서 그의 대표작이 된 <설국>이 탄생하였다. 연출력의 절정은 또 다른 대표작이 된 황순원 원작의 <소나기>(1978)에서 유감없이 발휘된다. <소나기>는 걸작 단편의 후광을 뛰어넘어 한국적 영상미학을 서정적으로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후 <꽃신>, <빙점81>, <외인들>, <영원한 관계>, <코리아 커백션> 등 종전과는 다른 장르를 섭렵해 가면서 2000년 <그림일기>를 마지막으로 그의 연출 활동을 마감하였다.

### III. 고영남의 작품소개[6]

고영남의 총 110편의 전 작품들을 장르별, 제작편수를 정리하면, 멜로영화 47편, 문예영화 6편, 희극영화 3편, 활극영화 22편, 반공영화 21편, 전쟁영화 1편(대부분 전쟁영화는 반공영화로 제작됨), 추리영화 8편, 시대물영화 2편 등이다. 장르별 작품을 분류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멜로영화

멜로영화는 크게 사랑이야기와 가족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인 인정드라마로 나눈다. 사랑이야기는 순수한 사랑이야기, 삼각관계, 사랑의 복수극, 불륜, 시

신) 연극영화학과 교수 역임, 대표작으로 <대수양> 등이 있다.

대물 사랑으로 세분화되고 가족이야기는 가족의 우애, 이산가족의 재회를 다룬다. 인정드라마는 인간들의 인정 있는 삶을 묘사하고 있다.

### 1) 사랑드라마

#### (1) 불행한 여인과의 순수한 사랑이야기

데뷔작 <잃어버린 태양>은 “고학생 상철과 옥희(엄앵란)와의 사랑이야기이다. 상철은 술집 마담 난옥의 영어 가정교사인데 난옥은 돈을 미끼로 순진한 상철을 밀수 마약의 운반책으로 이용한다. 어느 날 난옥의 술집에서 옥희와 마주친 상철은 옥희가 대학생인 줄로만 알았다가 술집 여자인 옥희에게 실망한다. 하지만 옥희가 병든 딸과 시어머니를 위해 돈 벌러 술집에 나왔다는 것을 알고 깊이 감동받는다. 상철은 옥희 딸의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난옥의 마약 밀수에 가담한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난옥은 상철을 이용하여 끝내 그를 죽음으로 내몬다. 현장으로 달려온 옥희는 상철의 시신 앞에서 울부짖는다[7].” 이외에 <잃어버린 태양>(1964), <이 세상 끝까지>(1965), <9월의 찻집>(1973), <언제나 님과 함께>(1973) 등.

#### (2) 삼각관계의 사랑이야기

##### 가) 치정적 살인드라마

<마지막 정열>(1965)은 “강민도(최무룡) 전무의 부인 고은미(엄앵란)는 실업계의 젊은 거물인 배성환(신성일)을 만난다. 아름답고 우아한 은미에게 매력을 느낀 배성환의 감정을 눈치 챈 강민도는 추진 중인 사업에 은미를 이용하여 은미와 성환의 관계를 은근히 부추긴다. 은미는 남편을 위해 성환을 만나지만 두 사람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 성환은 사업 파트너이자 애인인 선주(김지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질투에 눈이 먼 선주는 성환을 칼로 찌르고 자신도 죽는다. 큰 부상을 입은 성환은 병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은미를 찾아가 은미의 품에서 죽는다. 은미도 성환을 뒤따른다. 아내의 죽음을 안 강민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은미가 키우던 고양이를 안고 혼자 떠난다[8].” 이외에 <갯벌속의 여자>(1972), <죽어서 말하는 여인>(1973), <외박>(1983), <위험한 향기>(부부)(1988), <매춘

2>(1989), <나의 아내를 슬프게 하는 것들>(1991) 등.

##### 나) 운명적 사랑드라마

<서울머슴아>(1966)는 “전쟁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약혼자가 살아 돌아온다.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했으나 그는 그녀를 단념하지 않는다. 남편은 그녀의 약혼자를 가해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녀는 약혼자와의 인연을 끊는다. 그제야 전 약혼자도 그녀의 행복을 빌며 아쉬움을 남긴 채 덧없이 떠나간다[9].” 이외에 <사랑은 파도를 타고>(1967), <초야(初夜)>(1967), <애상(愛像)>(1967), <탈선>(1967, 녹음대본), <재혼>(1968), <바람>(1969), <위험한 관계>(1970), <한 많은 두 여인>(1971), <애인교실>(1973), <너와 나 그리고 또 하나>(1974), <여자의 방>(1980), <밤이 무너질 때>(1983), <열아홉살 뽕머리>(1985), <눈짓에서 몸짓까지>(1986), <제2의 성>(1988) 등.

##### (3) 사랑의 복수극

<미련>(1967)은 “전과 4범인 암흑가의 소두목(신성일)은 짝아도 알차게 살 생각으로 보석가게의 금고를 털는다. 언젠가는 수사진과 뒷골목의 짝패들에게 잡힐 것은 다름없다. 잡히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사랑을 배반한 여인에의 복수를 진행하다가 우연히 배신한 여인(문희)을 만난 그는 끌리는 절실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게 되고 삶의 미련을 되찾는다[10].”

##### (4) 불륜관계

<아빠안녕>(1968)은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을 사랑한 그녀는 본처로부터 많은 수모를 당한다. 참을 수 없는 것은 그녀의 자식이 그들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 이를 견디지 못한 그녀는 한강 백사장에 ‘아빠안녕’이라는 네 글자를 써놓고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세상을 하직한다[11].

##### (5) 시대물 사랑이야기

<안방마님>(1967)은 “성미가 괴벽스럽기로 유명한 괴벽대감이 말년에 이르러 자식들의 권유로 시골처녀 금희를 후처로 맞이하나 금희를 짝사랑하던 시골 건달

덕만이가 갖은 모함을 하여 그녀를 쫓겨나게 만든다. 대감의 자식들은 금희의 결백함을 알고 있으므로 덕만을 잡아다가 아버지 앞에 끌어앉히고 사실을 자백하게 한다. 그제야 피벽영감도 오해를 풀고 금희를 다시 안방마님으로 맞아들인다[12].” 이외에 <꽃네>(1969), <죽보>(1971) 등.

## 2) 가족드라마

### (1) 가족의 우애

<안개 낀 초원>(1967)은 “동생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한 그녀는 동생의 입원비 마련을 위해 평소에 자기를 좋아하던 사나이를 유혹한다. 그렇게 입원비를 마련하여 병원으로 달려갔으나 동생은 이미 숨져가고 있었다[13].” 이외에 <사랑이 미워질 때>(1969), <마음은 짚시>(1974) 등.

### (2) 이산가족의 재회

<빙우>(1967)는 “대학생 일웅(신성일)은 다방하면서 자신을 뒷바라지하는 어머니(이민자)를 위해 일종의 도피수단으로 결혼을 생각한다. 댄서생활하며 경제능력이 없는 아버지(정민)와 병든 새어머니를 부양하는 사랑하는 여자, 수진(남정임)과의 교제를 어머니는 반대한다. 어느 날, 일본에 살던 일웅의 아버지 정사장(최남현)과 수진의 친어머니 모리스 미에(주중녀)가 각각 자신들의 자식을 찾아 한국으로 나온다. 해방 전 일웅의 어머니와 모리스 미에가 아는 사이였던 까닭에 일웅의 어머니를 통해 수진은 모리스 미에를 만나 그녀가 자신의 친어머니임을 알게 되지만, 자신을 버리고 간 그녀를 새삼스럽게 어머니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일웅과 수진은 각자 20년 만에 찾아온 부모들로 인해 혼란을 겪지만, 수진은 친어머니인 모리스 미에와 화해하고 일웅 또한 어머니가 아버지인 정사장을 받아들여 화해에 이르도록 한다[14].” 이외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1969), <임그리워>(1970), <미리 마리 우리 두리>(1988) 등.

## 3) 인정드라마

<아들 딸 찾아 천리길>(1972)은 “35년간의 교직 생

활을 은퇴한 교장선생은 부인과 함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뜻 깊은 자리를 같이 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과 시아버지를 모시고 혼자 사는 딸을 만나 개가를 권하지만 딸의 굳은 결심을 확인하고 집으로 향한다[15].” 이외에 <축배>(1973), <10대의 영광>(1975), <청춘의 문>(1978), <광염소나타>(1979), <외인들>(1980), <여자여자>(1985), <그림일기>(2000) 등.

## 2. 문예영화

고영남의 문예영화는 충무로의 액션물과 멜로물 장르의 대표주자로 부상하던 시절, 인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창의력의 고갈로 좌절하였을 때, 그가 심기일전하여 새 작품에 도전한 장르가 문예영화였다. 감독으로서의 입지를 열망하였던 고영남이 도전의 결과로 대표작이 된 문예영화 <설국>을 탄생시켰다.

<설국>(1977)은 “민속학을 연구하는 상민은 온천마을을 찾아 은자라는 가야금기는 기생을 알게 되고 두 사람은 잠자리를 같이 한다. 다음해 겨울, 상민은 다시 온천마을을 찾아오는데 열차에서 강은하 여사의 양녀로 있는 옥엽이란 여자를 알게 된다. 다음해 가을, 상민이 다시 찾았을 때는 강은하 여사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은자와 옥엽은 따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누에창고에 불이 나자 은자는 상민의 손을 뿌리치고 옥엽을 구하러 달려가고 상민은 마을을 떠난다[16].” 이외에 <야녀 (원제:씨받이)>(1974), <사랑의 나그네>(1977), <꽃신>(1978), <소나기>(1978), <영원한 관계>(1979) 등.

## 3. 희극영화

<서울이 좋다지만>(1970)은 “무작정 상경한 시골 처녀 삼순이 다방에 취직한다. 그 삼순을 찾아 칠성이 상경하고 그들은 각기 생소한 서울 정경에 본의 아닌 실수를 거듭하여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마침내 삼순을 만나지만 허영심이 가득한 그녀는 그의 충고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삼순은 다방의 단골손님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그제야 칠성의 말이 옳았음을 깨

닫고 그와 함께 시골로 내려간다[17].” 이외에 <소문난 잔치>(1970), <장군의 딸들>(1971) 등.

#### 4. 활극영화

멜로물에 액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고영남의 활극 영화는 애정액션물, 가족애 액션물, 본격액션물, 첩보액션물, 무협액션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애정액션물은 사랑이야기에 활극이 가미되었고 가족애 액션물은 액션 영화를 빌어 가족 간의 우애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본격액션물은 주먹세계의 이야기나 경찰의 수사 활동을 다루고 첩보액션물은 반공영화나 경찰영화 등에서 잠입활동을 다룬다. 무협액션물은 무협 세계의 복수극을 그렸다.

##### 1) 애정액션물

<김두한>(속 제 3부-폭탄열차)는 “광복이 되자 서대문 교도소의 김두한은 영접을 받으며 출소한다. 그러나 좌익분자들의 폭동은 국토를 다시 한번 혼란하게 하고 두한과 그의 부하들은 공산당에 대치하여 이들을 무찌른다. 그중에 오른팔 노릇을 하는 태일을 그들의 손에 잃고 부하마저도 좌익의 교묘한 포섭에 넘어가 두한을 배신한다. 전국의 철도파업을 선도하여 열차교통을 마비시켜버린 이들 적색분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두한과 부하들은 열차를 끌고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혀 결국 열차는 다시 전국을 순행하게 된다. 그러나 미군정 재판에 소환된 두한은 선옥과의 이별로 감회에 젖는다[18].” 이외에 <상해 오십 오번지>(1965), <태양은 늙지 않는다>(1970), <두 줄기 눈물 속에>(1971) 등.

##### 2) 가족애 액션물

<명동 44번지>(1965)는 “명동일대를 주름잡던 강패는 4.19를 거친 후 갱생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부하들을 선도한다. 그 후 5.16으로 수감되는데, 그동안 형의 생활에 대해 통탄해 오던 판사가 된 동생의 도움으로 그는 모범수로 출감해 다시 새출발을 다짐한다[19].” 이외에 <사나이 세계>(1969) (녹음대본), <한양건달>(1970), <나이프 장>(1970) 등.

##### 3) 본격액션물

<코리아 커넥션>(1990)은 “어느날 강남 테헤란로에서 포장마차 부부를 치어 죽이고 뺑소니를 친 사고가 일어난다. 이에 분노를 느낀 황동수 형사는 끝까지 추적할 것을 결심하고 젊은 오형사와 합동작전을 벌인다. 그러나 뺑소니 차량이 바로 히로병 밀매조직의 벤츠차였음을 알아내고 쾌재를 부르는 순간 그들 조직에 의해 오형사가 살해된다. 또한 경찰에서는 황동수형사의 과격한 성격을 염려하여 그를 전담반에서 제외시키고 여형사 이미옥과 함께 인신매매사건을 맞도록 한다. 그러나 그는 오직 오형사 살해범에 대한 적개심으로 단독수사를 강행하여 결국 히로병 밀매조직의 윤곽을 알아낸다. 결국 그 어마어마한 밀매조직과 뒤에 도사린 비호세력의 횡포를 파헤치고 이미옥형사의 협조로 밀매조직을 소탕한다[20].” 이외에 <66번가의 혈연>(1967), <칠인의 밀사>(1968), <별명을 가진 오형제>(1970), <명동의 12 사나이>(1971), <김두한>(속, 제4부) (1975), <왕룡>(1976) 등.

##### 4) 첩보액션물

첩보액션물은 반공액션물과 영화적 긴장 그리고 서스펜스 등의 극적 요소가 비슷하다. 다만 내용과 주제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5인의 건달들>(1971)은 “시장에서 상인들을 착취하는 장백만 일당이 그들에게 대든 도장사범 강호를 죽이자, 강호의 형 왕은 동생의 복수를 위해 옛 친구인 건달을 모은다. 보수는 5만원으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 5인은 일단 시장에서 장백만을 몰아내지만 상인을 인질로 삼은 장백만은 이들을 유인하여 패배시킨다. 결투하던 중 위기에 몰린 왕은 자책감을 가지고 되돌아 온 일당들과 함께 장백만을 죽이려고 하지만 5명 중에서 풍은 경찰임이 밝혀진다. 풍은 장백만 일당과 왕을 살인죄로 체포한다[21].” 이외에 <잠바 큐(Q)>(1969), <독사>(1975), <지옥의 초대장>(1975) 등.

##### 5) 무협액션물

<천풍>(1973)은 “외국의 침략으로 젊은이 몇 명이 입산하여 대승 수라의 밑에서 수련을 한다. 그들 중에

서 수라의 걸출한 두 제자 천풍과 수련은 모든 과정의 훈련을 끝내고 하산한다. 수라는 그들에게 위협할 때 사용하는 염주알인 Bijou를 준다. 그들은 마을에서 만난 도적들을 격퇴한다. 천풍은 또 다른 절로 가기 위해 수련과 헤어지고 거기서 그는 신비한 자기 방어술을 배운다. 아버지와 충신을 죽인 살인자에 관하여 알게된 천풍은 용맹무쌍한 결투 끝에 복수하는데 성공한다 [22].” 이외에 <천하무적>(1975), <수제자>(1976) 등.

## 5. 반공영화

반공물은 첩보반공물, 전쟁반공물, 빨치산반공물, 반공교육물로 나눈다. 첩보반공물은 간첩활동에 잠입하여 간첩일당을 섬멸하는 첩보물이고 전쟁반공물은 공산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전쟁을 다룬다. 빨치산반공물은 빨치산을 소재로 다룬 이야기이고 반공교육물은 공산주의의 만행을 폭로하거나 공산주의를 경계시키는 교육물이다.

### 1) 첩보반공물

<국제경찰>(1976)은 “수사를 진행하던 국제경찰 두 명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본부는 바비깎을 불러 홍콩으로 급파한다. 홍콩에서 이미 수사에 착수한 동료 파랑과 합세한 바비깎은 애인 경희와도 만난다. 그러나 수사중에 정보가 누설되어 범인이 경희임을 의심하게 된다. 고민을 하던 바비깎은 조직에서 물러나 알콜중독자가 되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를 다시 이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조직에서 물러난 것은 모두 계획했던 것으로 공산주의자 두목은 파랑으로 밝혀진다. 이들은 모두 소탕되고 경희와 바비깎과 이별한다[23].” 이외에 <스타베리 김>(1965), <지금은 죽을때가 아니다>(1969), <웨리호를 타라>(1971), <명동졸업생>(1971), <70인의 여죄수>(1974), <평양의 비밀지령>(1977) 등.

### 2) 전쟁반공물

<잃은 자와 찾은 자>(1966)는 “6.25가 발발하자 괴뢰의 협력자가 되어 친구를 배신한 주인공은 미라를 능욕하여 자기 것으로 만든다. 임신중인 미라는 괴뢰군 대

열에 함세하여 그를 쫓아가서 월북을 단념하도록 설득한다. 마침내 그는 그녀와 함께 월북대열에서 탈출하지만 괴뢰군의 총탄에 그는 숨진다[24].” 이외에 <심판>(1968), <결사대작전>(1969), <특공외인부대>(1972), <공수특공대작전>(1977), <독수리전선>(1976) 등.

### 3) 빨치산반공물

최초의 빨치산영화는 이강천의 <피아골>이 있다. 이 작품은 빨치산의 만행을 보여주지만 반공영화라기 보다 인간의 이야기를 주제로 삼았다. 그런 탓으로 검열에 문제가 생겨서 보충촬영으로 개봉하게 된다. 고영남의 빨치산영화는 빨치산의 잔혹함에 초점을 맞춰 반공의식을 강조하였다. <사회산>(1969)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물리학의 권위자, 도상록 교수(김동원)가 평양에서 온 사람들에게 의해 납치된다. 둘째, 김원팔(김승호)이 외팔이(이대엽)과 만나 사회산에 숨겨져 있는 금괴를 찾으러가자고 설득하여 알콜중독자인 별집(박노식), 전라도 출신 족제비(장혁), 사기사(허장강), 단신 월남한 대모산(오지명), 비둘기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이순재) 각기 나름의 사연과 이유를 안고 사회산으로 향한다. 셋째, 빨치산 대장을 구해 준 정옥의 사연이다. 그들은 서로를 간첩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도상록 교수를 납치한 일당은 사회산 근거지에 정착하고 지대장 정옥(문정숙)은 비둘기 고아원에 찾아가 아들 성일(김정훈)을 몰래 바라본다. 빨치산 중 영덕(강민호)은 마을처녀 분례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자수를 권유하는 분례에게 영덕은 자수하고 싶지만 산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말한다. 김원팔 일행 중 금괴를 탐낸 족제비가 몰래 지도를 빼내 산으로 향한다. 이를 목격한 대학생도 족제비 뒤를 쫓는다. 두 사람은 산에서 빨치산과 마주쳐 대학생만 빨치산에게 잡혀 끌려간다. 정옥은 성일을 돌봐주었던 대학생을 구하기 위해 자신에게 구해하던 부부장(박암)에게 몸을 허락하나 부부장은 대학생을 죽이고만다. 김원팔, 외팔이, 별집, 사기사는 사회산에 오르고 금괴를 찾기 전에 먼저 빨치산 일당을 해치우기로 한다. 그러나 별집과 외팔이가 빨치산들에게 잡혀 지하감옥에 갇히면서 별집은 외팔이에게 과거를 털어놓는다. 사실 정

옥은 별집의 아내였다. 공산주의 활동을 하던 정옥의 오빠(성소민)가 김일성의 동생인 부부장을 숨겨달라고 부탁하자, 별집이 이를 반대하며 오빠에게 총을 쏘아 죽였고 정옥은 오빠의 유언을 따라 부부장을 평양에 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북한군은 정옥을 이용하기 위해 성일을 고아원에 보냈고 이로써 별집의 세 식구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대모산, 사기사, 족제비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대모산이 나타나 평양에서 온 밀사를 자처하며 그들을 풀어주라고 명하자 마침내 진짜 밀사인 외팔이가 정체를 드러낸다. 외팔이는 부부장이 실은 김일성의 동생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를 대모산, 별집과 함께 사형대에 세운다. 총격 직전 토벌대가 아지트를 공격한다. 사실 사기사는 토벌대장 허중령이었고 토벌대는 빨치산을 섬멸한다. 대모산은 사실 도교수의 아들로 도교수를 구하려하나 이미 그는 죽었다. 김원팔도 이곳에 있는 아들 영덕을 찾기 위해 급귀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부자는 상봉하고 대모산은 아버지의 시신에 태극기를 덮어준다[25].<sup>5</sup>

#### 4) 반공교육물

<소령 강재구>(1966)는 “한국전쟁 때 아버지가 북한에 납치된 후, 삼바느질하는 홀어머니(황정순) 밑에서 자란 육군사관생도 강재구(신성일)는 투철한 군인정신의 원칙주의자이지만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다.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말썽만 부리던 건달출신 후임병(트위스트 깃)은 그를 친형처럼 따른다. 장교로 임관하고 현모양처형의 여인(고은아)과 결혼을 한 후, 어느 날 수류탄 투척훈련 중, 한 사병이 던지려던 수류탄을 놓쳐 사병들 가운데로 떨어진다. 위기일발의 순간, 그는 수류탄을 자신의 몸으로 안고 많은 부하들을 위기의 순간에서 구하고 죽는다[26].” 이외에 <서북청년>(1975), <탈출>(1975), <사랑과 죽음의 기록>(1978), <비목>(1978), <용서받은 여인>(1976), <내가 마지막 본홍남>(1983) 등.

#### 6. 전쟁영화

고영남의 전쟁영화 대부분은 반공영화에 속한다. <성난 해병결사대>(1971)는 “월남 전선에서 신하 같은 전공을 남기고 장렬하게 산화한 초인간적인 용사, 지덕칠 해군하사관의 이야기이다. 월맹군들로부터 3중으로 포위당한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위생병인 지덕칠 하사는 전선에 8발의 총상을 입고도 동료들을 구출하고 소대를 안전지대로 퇴출시킨 뒤 푸르른 월남의 사랑하는 여인 지영을 그리며 그는 죽어간다[27].”

#### 7. 추리영화

추리영화는 고전공포영화의 장르로 1960년대 부터 1980년대까지 간간이 개봉되었다 고영남의 <깊은밤 갑자기>는 한국 공포영화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뛰어난 만들새와 개성을 갖춘 걸작으로 알려진 작품이다[28]. 고영남의 추리영화는 공포영화의 장르에 속한다. <깊은 밤 갑자기>는 “생물학계의 권위자 강유진이 지방에서 나비채집을 마치고 돌아와 여행의 성과를 동료 연구자들 앞에서 발표한다. 발표 도중, 희귀한 나비들의 모습을 담은 슬라이드 사이에 정체불명의 목각인형을 찍은 사진이 발견된다. 유진의 아내 선희는 그 모습에서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낀다. 얼마 후 채집여행을 떠났다 돌아온 유진은 화재로 무당인 어머니를 잃고 홀로 남겨진 여인 미옥을 가정부로 데려온다. 마침 일손이 부족하던 선희는 미옥을 반갑게 맞이하였지만 자신과 달리 젊고 아름다운 미옥의 육체는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더구나 미옥이가 가져온 짐꾸러미에서 슬라이드를 통해 보았던 목각인형이 나오자 선희의 불안은 커져만 간다. 논문 준비로 바빠 아내와의 동침을 거부한 남편의 태도로 선희는 유진과 미옥의 간통을 의심한다. 미옥을 사고로 가장하여 죽이려던 선희는 미옥이 사라진 뒤에도 목각인형은 남아 선희를 옥죄인다. 결국 어둡고 폭풍우가 치던 어느날 밤, 집에 홀로 남은 선희는 목각인형의 습격을 받는다[29].” 이외에 <고별>(1967), <백장미>(1969), <깊은 밤 갑자기>(1981), <친구여 조용히 가다오>(1981), <빙집'81>(전후 완결편)(1981), <내가 사랑했다>(1982), <사랑의 노예>(1982) 등.

5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칠인의 밀사는 시나리오로 존재하고, 같은 시나리오로 사회산이라는 영화가 제작됨. 줄거리는 사회산.



## 8. 시대물영화

시대물영화는 사극(epic drama)과 구분되어야 한다. 사극은 철저한 고증이 요구되는 역사물이지만 시대물은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꾸려가기 때문에 역사물과는 성격이 다르고 고증이 중요치 않다.

<봉성부인>은 “어느 옛시대로 그 내용은 마부 위충현이 마을사람들을 모아놓고 황실에서 태자의 보모를 찾는다는 얘기를 전하던 중 객의낭을 보고 한눈에 반해 황실보모로 들어가게 한다.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충현은 내시로 위장해 태자를 잘 돌봐 대비의 총애를 받고 있는 객의낭을 이용해 만리황제를 죽이고 객의낭에 빠져있는 작은 황제를 옹립한다. 드디어 정권을 장악한 위충현이 가짜 내시라는 사실을 알아낸 대신 조위소는 대신들과 합세해 위충현을 제거할 계획을 세운다. 이를 눈치챈 위충현은 그들을 일망타진해 버리고 객의낭은 황제의 총애 속에 호사스런 생활을 누리며 황제 몰래 위충현과 정을 통하면서 봉성부인이라는 칭호까지 얻는다[30].” 이외에 <금병풍월>(1990)도 있다.

## IV. 고영남의 작품세계 논의

고영남은 영화가 무엇이지는 몰라도 한국적인 여건에서 제작자, 감독, 주연배우가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성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감독 작업이 성공했어도 제작자가 선전광고에 인색하다든지 엄청난 몰락으로 선전하고 연출이 뛰어났어도 대중이 외면하는 배우는 늘 영화를 망쳐 왔음을 회고하는 그는 영화는 첫째 재미, 둘째 관객의 의중을 명중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생각은 대부분의 연출작품이 멜로물과 활극물로 주류를 이룬 것이 그 결과를 확인시켜 준다.

고영남은 그를 <잃어버린 태양>으로 감독 데뷔시킨 제작자 광정환씨를 20여년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궤사장이 “넌 병신처럼 실속도 없이 어디를 헤매고 다니느냐, 임권택이 세계적인 감독이 되었는데 마음이 편해?”라고 말하자, 고영남은 “나도 사람(제작자) 잘 만

나면 팔자가 달라지지요.”하고 대답한 덕분에 궤사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 2년이란 제작기간과 과격적인 제작비를 투여한 궤사장의 합동영화사는 <메밀꽃 필 무렵>을 만들기로 하였으나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고영남은 문예영화를 감독하고자 하는 그의 욕망을 기회 있는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그가 감명 받은 많은 영화 중에서 슈렌도로프의 <양철북>을 기억하는데, 그 이유는 문학의 난해한 관념이나 이데올로기까지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고영남의 확신 때문에 그의 자천 연출작품으로 문예영화인 황순원의 <소나기>와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을 꼽는다. 그는 단순한 흥행감독으로서가 아닌 문예영화로 영화작가적 승부에 대한 열망이 일찍부터 있었다. 1960년대 흥행감독으로 자리 잡았던 고영남의 영화에 대해 단순한 구조와 활동성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평가되곤 했었으나, 1970년 후반 부터는 무게감 있고 깊이가 있는 작품연출로 인정받은 것은 문예영화를 연출한 이후로 확인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고영남의 가장 두드러지게 주목 받았던 장르는 활극이었다. 당시 한국영화계의 배급 구조는 지방업자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고 그들의 영화 제작은 예술성이 뛰어난 영화보다는 흥행할 수 있는 영화가 그들의 목표였다. 관객들의 시선은 멜로물보다 활극같은 강하고 자극적인 장르에 관심을 가져 모든 제작자는 흥행을 결정짓는 요소로 활극을 추구하였다. 상업적으로 안정된 영화를 많이 만들었던 고영남의 대부분 영화는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어떤 할리우드 영화에도 뒤지지 않은 액션 블록버스터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재미있는 <김두한 제 3부-폭탄열차>는 상업영화의 한 전형으로 자리 잡았다.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폭탄이 실린 열차와 거기에 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김두한과 그의 부하들의 활약상은 한국 활극영화로서는 특별하였다. <국제경찰>도 당시 인기를 구가하던 액션스타 바비김과 한국에서 인지도가 높던 홍콩배우 로레가 출연하여 한국 형사와 홍콩 형사가 홍콩을 누비며 함께 수사하는 전형적인 버디영화로 상당히 세련된 영화로 기억되는 작품이다[31].

활극물 다음으로 많이 만든 영화가 반공물이다. 고영

남의 반공영화는 반공을 내용으로 하는 활극영화로 활극영화와 장르적 성격이 비슷하다. 첩보반공물, 전쟁반공물, 빨치산반공물, 반공교육물로 분류되는데, 반공영화는 공산주의의 만행을 폭로하거나 공산주의를 경계시키는 계몽적인 영화이다. 한국은 6. 25 한국전쟁으로 진실로 평화와 자유를 갈구하는 국민이 되었다. 한 민족의 분단으로 끊임없이 느끼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반공사상을 국시로 삼아 반공영화를 국책영화로 장려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반공사상의 관념만이 의미없이 분출하는 흥행물에 불과한 반공영화는 분단상황이나 사회문제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야심작이 없었다. 고영남의 반공영화도 그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고영남은 한 때 활극물에는 손대지 않겠다고 결심한 적도 있었다. 그 이유는 엉뚱한 데에서 발생했는데, 그의 영화<사나이 세계>(1969), <한양건달>(1970)에서 주연배우를 한 대표적인 활극배우 박노식과의 좋지 못한 폭행 사건 때문이었다[32-34]. 하지만 한국영화계에서 활극물의 전문인 감독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고영남은 이후에도 박노식을 주연으로 <별명을 가진 오형제>(1970), <명동의 12 사나이>(1971), <5인의 건달들>(1971) 등 활극물을 연출할 수 밖에 없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침착했던 고영남은 거친 성격의 박노식을 외면하기보다 오히려 그의 성격을 살려 <명동의 12 사나이>에서 일본인 폭력배와 맞서 싸우는 용감한 명동의 사나이로, <5인의 건달들>에서는 동생의 복수를 위해 싸우는 의리의 형으로 통쾌한 사나이의 캐릭터로 탄생시켰다. 체육학과 출신으로 권투선수였던 박노식과 고교시절 배구선수였던 그들은 활극영화 장르에서 서로 잘 맞았던 것이다. 사실 “고영남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화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술을 좋아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였던 교회장로서 평소 봉사활동도 많이 했다.”

하지만 흥행의 중심에 있었던 고영남에게도 좌절의 시기가 찾아 왔고 예술영화보다는 상품에 가까운 영화 연출에서 오는 회의감으로 자연스럽게 슬럼프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 끝에 슬럼프

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았다. 그것은 일본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설국>(1977)의 영화화였다. 작품내용은 사랑의 삼각관계를 그린 문예영화로 고영남의 대표작이 되었다. 이어서 <소나기>를 영화화하면서 그의 연출력은 절정에 이른다. 특히 <소나기>(1978)[35]는 고영남이 가장 아끼는 작품[36]으로 시골국민학교에 전학 온 언이라는 서울소녀(조운숙)에게 사랑을 느낀 석이(이영수)의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렸다. 첫 사랑을 소재로 한 한국 영화의 원형이라 말할 만큼 한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스크린에 옮기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의 수많은 작품의 여러 장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장소가 <소나기>의 배경이 되었다는 충북 영동지방의 한 마을의 여운을 고영남은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있다. 징검다리, 조약돌, 모닥불, 원두막, 논두렁, 물레방아, 명석 등 우리 고유의 풍경들이 활극물의 전문 감독의 뒤에 숨겨진 그의 순수한 감성을 들춰내어 <소나기>의 향토색 짙은 영상에서 표현되었다. “<소나기> 중 일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동급생인 일본 여학생과 연애했던 자신의 경험을 살렸다는 점도 밝혀졌다[37].” 감독의 성장배경이 작품세계와 그리고 역중인물의 이념을 통해 표출되고 있음은 김수남의 한국작가주의론이 이미 검증하였다[38]. 고영남은 <소나기>(1978)를 연출한 전후로 문예영화를 지속적으로 연출하였다. <소나기>(1978)이전의 <야녀>(원제:씨밭이)(1974), <사랑의 나그네>(1977) 그리고 <소나기> 이후의 <꽃신>(1978), <영원한 관계>(1979) 등이 그작품들이다. 그가 문예영화에 연관된 것은 <흙>(1960), <표류도>(1960 등)의 조연출 경력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익대학교 국문과 출신인 고영남에게 문예영화는 활극영화 전문 감독인 그의 이면에 감춰진 그의 감성적인 내면을 잘 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종원은 고영남 감독의 연출패턴과 아주 다른 정적인 호흡의 리듬으로 바이올린의 감미로움을 느끼게 하는 연출기법의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평하였다[39]. 당시 수많은 작품의 연출과 흥행성, 상업성에 지

7 소나기」(1978)는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최초로 베니스영화제 출품하였으며 한국 문학 해외소개 차원으로 아리랑TV로 해외에 방영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친 고영남에게 문예영화는 제 2의 창작기가 시작되는 좋은 기회로 김종원의 지적처럼 연출의 전환점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영화계에서 문예영화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이다. 그러나 문예영화라고 모든 작품이 예술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안병섭은 “‘예술영화에 대한 오해, 문예영화와 정책영화’에서 우수영화의 주 대상이 되는 문예영화의 우수영화 선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40].” 문예영화는 소설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영상미를 더할 수 있고 특히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를 각색했을 경우, 미장센, 숏, 신 등 세밀한 묘사나 기술이 요구되는 영상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41].” 한국 문예영화의 대표적인 감독인 김수용이 말하는 문예영화의 연출작업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된다. ‘하나는 소설의 영상화에 있어서 시각적인 면의 강조와 다른 하나는 영상화에 의한 소설의 주제를 현재적인 시점에서 강조하는 측면이다[42].’

고영남의 원작의 영화화 방식에는 위에서 언급한 원칙을 나름대로 독자적인 방식으로 따르고 있다. 그의 문예영화는 인습을 내세운 향토물로 <야녀>, <설국>, <소나기> 그리고 현실의 모럴을 제시한 사회성 작품으로 <사랑의 나그네>와 전쟁의 상흔과 이데올로기 극복의 영화로 <꽃신>, <영원한 관계> 등이 있다. 그의 문예영화에서 활극영화의 자극적인 액션의 강조보다 언어의 삭제를 추구하였는데, 시각화를 강조하고자 롱테이크의 묘사기법과 이를 확충시키는 촬영기법을 활용하여 정적인 분위기를 창출하였다. 특히 한국의 풍경을 배경으로 하는 <설국>이나 <소나기> 등의 장면들은 이 기법들이 자주 활용되어 등장인물들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내면을 간접적으로 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등장인물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의 그림보다 등장인물의 갈등을 들춰내 주는 영상의 힘으로 영화적 현실을 사실주의 극 정신으로 창조하였다. 사실의 반영으로서 영화론을 주장하는 크라카우엘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단지 이용할 뿐이지 그것을 조작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43].” 고영남의 연출스타일은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스타일이든 자연

스럽게 추구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고영남은 1970년 후반의 문예영화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나 사랑을 소재로 심도있는 이야기를 많이 다루면서 1960년대의 단조로운 멜로영화에서 한 차원 벗어난 새로운 멜로영화를 생산하였다. 부부간의 진정한 성의 의미를 과감하게 그린 <제2의성>, 이혼남에게 사랑을 느끼는 19살 소녀의 이야기 <열아홉살 생머리>, 묘령의 여인과 한 번의 정사로 인해 사랑의 함정에 빠져 가정의 파탄의 위협을 받는 <위험한 향기>, 남편에게 집요하게 접근하는 여인으로 인해 가정의 위기를 겪는 <나의 아내를 슬프게 하는 것들> 등같은 작품들은 종래 한국멜로드라마의 영역을 한 단계 확장시켰다. 예를 들면 “<나의 아내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단순한 간통 소재의 영화가 아니라 그런대로 사회성을 담아내었다. 하지만 영화의 한계는 사랑이 성폭행당한 여자의 환부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지라도 가정을 파괴해선 안 된다는 윤리적 잣대였다. 그 결과 성폭행당한 여자처럼 상처를 감싸 안을 수 없는 냉혹한 이 사회의 현실을 환기시키고 있었다[44].”

지금까지 고영남의 장르별 대표 작품을 중심으로 그의 연출 작업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의 작품에 대해서 평론가들의 평가는 인색하고 특히 멜로영화나 활극영화에 대한 영화비평계의 평가절하적 편견은 고영남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110편 연출이라는 한국영화계의 최 다작 연출감독의 경력에서 굳이 몇 편의 평가받는 문예영화가 아니더라도 고영남의 작품세계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은 한국영화의 진정성과 정체성을 부단히 추구하는 고영남의 영화만들기의 신념이다.

## V. 결론

고영남은 상업성을 성취하면서 꾸준히 작품성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의 내면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영화계의 현실성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던 그의 고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누구는 영화감독이 좋아서 가난에 못견디 아내가 세 번씩이나 바뀌어도 메가폰을 놓지 않

왔다지만 나는 자력으로서 메가폰을 하나 들고 인생을 승부 했어요. 그래서 정신 없이 레디 고를 부른거지요. 작품을 선택하고 제작자를 고르고, 이젠 나에게 사치였어요. 성급하게 많은 영화를 만들어야 생계가 가능했지요[45].”라고 말하면서, 임권택 감독이 가난을 지긋이 참고 좋은 사람(제작자)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용기와 인내심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그의 자조에서 한국영화 감독의 비애를 넘어서서 그들의 업보를 엿볼 수 있다. 그가 광적으로 좋아하는 낚시터에서 얽힌 줄을 가위로 잘라버렸던 성급함을 벗어나 종일 걸려서라도 손으로 풀게 되었을 때, 이제 감독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 말은 설득력 있게 들린다.

영화가 상품이라는 속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폄하하지 않았던 고영남은 작가정신을 지니고 만든 작품만이 흥행의 성공여부를 떠나 진정한 작품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신념은 장르영화의 특성상 영화만들기와 감상의 차원에서 지키기가 어렵다. 토마스 사츠는 ‘한 장르가 다른 장르와 차별화 되는 것은 등장 인물들의 태도와 행위로 이루어지는 극적 갈등의 해결방식이다. 장르영화의 내러티브 구성 요소들은 예정된 주제까지 함축할 정도이며 결국 영화가 제작되는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관객의 가치관에 의해 극적 갈등의 해결 방식은 결정된다[46].’라는 주장은 고영남의 멜로영화나 활극영화에서 작가적 신념을 추구하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고영남은 활극영화나 문예영화의 작품세계를 통해서 영화만들기의 신념을 고집하면서 그가 직면한 한국영화계의 모든 장애물을 나뉘대로 극복하고 있었다.

본 연구가 멜로영화나 활극영화에 대한 비평가의 평가절하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고영남처럼 경력있는 감독의 재평가에 기여하길 바란다. 의미없이 잊혀져 가는 한국영화 감독들에게 그들의 업적에 대한 흔적들로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

## 참고 문헌

[1] “원로감독 고영남 씨(본명 진석모)가 17일 새벽

분당 차병원에서 폐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68세”, 경향신문, 2003.9.18.

- [2] 진 현, “영화 뉴스 <소나기>, <설국>의 고영남 감독 별세”, 씨네신문, 2003.9.23.
- [3] 김수용, *영화를 뜨겁게 하는 것들*, 대원, 1995.
- [4] 김종원의 신강호, 김시무, 문학산, 강성률, *한국영화감독사전*, 국학자료원, 2004.
- [5] 이진모,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한국영화인물론 ‘고영남 - 승화된 영상에의 영원한 노스텔지어’*, 2003.
- [6] [http://www.kmdb.or.kr/actor/mm\\_basic.asp?person\\_id=00001305&keyword=고영남](http://www.kmdb.or.kr/actor/mm_basic.asp?person_id=00001305&keyword=고영남)
- [7] [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1061&keyword=잃어버린%20태양](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1061&keyword=잃어버린%20태양)
- [8] [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1138&keyword=마지막정열](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1138&keyword=마지막정열)
- [9] [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1271&keyword=서울머슴아](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1271&keyword=서울머슴아)
- [10] 무난한 통속 청춘물 - 고영남 감독, 신성일 주연, <미련>, 주간한국, 1967.4.16.
- [11] [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1682&keyword=아빠안녕](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1682&keyword=아빠안녕)
- [12] [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1480&keyword=안방마님](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1480&keyword=안방마님)
- [13] [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1460&keyword=안개긴초원](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1460&keyword=안개긴초원)
- [14] [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1438&keyword=빙우](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1438&keyword=빙우)
- [15] [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2556&keyword=아들%20딸%20찾아%20친리길](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2556&keyword=아들%20딸%20찾아%20친리길)
- [16]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3110&keyword=설국 고영남#url](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3110&keyword=설국 고영남#url)
- [17] [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2179&keyword=서울이%20좋다지만](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2179&keyword=서울이%20좋다지만)

[18]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2929&keyword=김두한#url](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2929&keyword=김두한#url)

[19] [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1107&keyword=명동%2044번지](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1107&keyword=명동%2044번지)

[20]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4295&keyword=코리아 커넥션#url](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4295&keyword=코리아 커넥션#url)

[21]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2347&keyword=5인의 건달들#url](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2347&keyword=5인의 건달들#url)

[22] [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2717&keyword=천풍](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2717&keyword=천풍)

[23]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2984&keyword=국제경찰#url](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2984&keyword=국제경찰#url)

[24] [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1274&keyword=잃은%20자와%20찾은%20자](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1274&keyword=잃은%20자와%20찾은%20자)

[25] [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1855&keyword=칠인의%20밀사](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1855&keyword=칠인의%20밀사)

[26] [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1315&keyword=소령%20강재구](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1315&keyword=소령%20강재구)

[27] [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2365&keyword=성난%20해병결사대](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2365&keyword=성난%20해병결사대)

[28] 장세진, *한국 영화 씹어먹기*, 우리 문학사, 1995.

[29]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3532&keyword=깊은밤 갑자기#url](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3532&keyword=깊은밤 갑자기#url)

[30] [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4609&keyword=봉성부인](http://www.kmdb.or.kr/movie/md_basic.asp?nation=K&p_dataid=04609&keyword=봉성부인)

[31] 장세진, 위의 책.

[32] 경향신문, 1970.8.12.

[33] 매일경제, 1970.8.12.

[34] 매일경제, 1970.8.18.

[35] 이진모,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한국영화인물론 “고영남 - 승화된 영상에의 영원한 노스텔지어”, 2003.

[36]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인터뷰] ‘고영남이 아끼는 작품’.

[37] 정동진 독립영화제, ““영화의 고향을 찾아서” 소나기의 촬영지 충북영동에서의 고영남 감독 인터뷰 中”, 2002.

[38] 김수남, *한국영화작가연구*, 예니, 1995.

[39] 김종원, *영상시대의 우화*, 제3기획, 1985.

[40] 안병섭, *영화적 현실 상상적 현실*, 정음사, 1989.

[41] 사이드 필드, 유지나 옮김,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4.

[42] 김수남, *한국영화 감독론 II*, 지식산업사, 2003.

[43] G. Mast and M. Cohen, *Film Theory and Criticism*, Kracauer Siegfried, “Theory of Film”, 뉴욕, Oxford 대학 출판, 1979.

[44] 장세진, 위의 책.

[45] 김수용, 위의 책.

[46] 토마스 샤프, 한창호, 허문영 옮김, *할리우드 장르의 구조*

#### 저 자 소개

김 수 남(Sunam Kim)

정희원



- 1976년 2월 :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문학사)
- 1981년 6월 : 뉴욕대학교 인문대학원 공연학과(문학 석사), 예술대학 영화감독과 수학
- 2000년 2월 : 동국대학교 영화학과(영화학 박사)

• 1985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관심분야> : 한국영화사, 영화감독연구, 영화비평, 매체연구